8기 전여대협 역사 연구

1. 정세
-대선, 지방선거
-6.15공동선언 발표 2돌
-민간급 자주교류 행사들(남북 새해맞이공동모임, 아리랑 축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개속
-여성농민 이중삼중 고통,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투쟁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호주제 폐지투쟁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움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

2. 대중투쟁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
*조국통일투쟁
-공동선언 이행투쟁
40일 비상 시기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61500 여학우 선언운동>을 제출하고, <61500 여학우 선언운동>은 여학단위에서 자체의 내용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을 여학우들과 실질적으로 벌이는 실천활동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그 의의가 큰 만큼 각 대학의 여학 일꾼들이 통일과 여성해방의 관계를 더욱 심도깊게 고민하고 연구해야할 과제를 스스로 찾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여는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 청학 준비위원회>와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청학위원회>에 여학우들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참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새해공동행사와 6·15 민족통일대축전, 8·15 민족통일대회 등에서 전여대협 참가단을 구성하여 남북여성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8·15 민족통일대회 셋째날 북측 여성대표 6명, 남측 여성대표 20여명 등 남북의 여성대표단이 모여 여성상봉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여성통일대회의 공식 명칭을 <6.15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북남)여성통일대회>로 확정
(남북새해맞이 공동모임 2월26-28일)
(남북여성통일대회)
아리랑축제(4.29-6.29)
-통일토론회
-이북 3대호소, 3대세의 투쟁
-범국민적 진행
남여대협-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처음으로 <광주전남 여성통일 큰잔치>를 벌임.
서울지역-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앞두고 <여성이 만드는 통일세상>을 진행함.
6·15 민족통일대축전, 살인미군처벌 8·13 대학생 행동의 날 등에서 서여대협의 이름으로 여학단위가 주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단위의 투쟁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음.
(6.15 2주년투쟁)
8·15에서도 작년에 이어 2회 여성통일한마당을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던 성과가 있었습니다
(통축)
(반통일세력척결투쟁)
(범여성위원회건설 준비)

*반미자주화 투쟁
-반미반전투쟁
미군에 의한 장갑차 살인만행 규탄 8·13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 준비위에 참여하여 대학생 행동의 날을 성과있게 진행
-부시방한 반대투쟁
-윤금이씨 10주기 추모제

*반일자주화 투쟁
-군국주의 부활반대
3월 말 고이즈미 일 총리의 방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반일투쟁에서 전여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고이즈미 방한 반대,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대학 총여학생회장, 총학생회장 선언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

*사회민주화 투쟁
<여성이 만드는 새 정치 주간>(가) 사업을 대학별 상황에 맞게 진행해봅시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적론 철회
-항심수석방
-한총련 이적규정철회투쟁
전여대협 의장 연행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투쟁을 만들어갑시다.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여성노동자 투쟁
3·8 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여성노동자투쟁을 주요하게 가져가야한다는 요구성과, 대학 내 여학생운동이 공동투쟁을 만들어감으로써 대학 내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전망을 만들어가야한다는 장기적 요구성에 기반하여 <3·8 세계여성의 날 투쟁기획단>을 결성했습니다.
특히 3·8대회가 끝난 이후 바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으로 전환하여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큰 성과입니다.
-비정규 노동자 보호 법적장치 마련,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투쟁
-연대투쟁 (여성노동자투쟁/지역별 연대투쟁)

*여성농민투쟁
-농촌연대활동

11·13 농민대항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투쟁
-전국여농학연추회의 및 농활 토론회 진행
-봄,여름,가을농활

*여대생 노동권 확보투쟁
-여성노동 관련 워크 (?)
-청년실업문제

@반가부장제 투쟁

*반성폭력 운동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성폭력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획자보 등의 의식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여러 대학에서 문화제, 성문화캠페인, 영화제, 강연회, 대자보, 신문, 화장실 소식지, 마당사업, 퍼포먼스, 대동제 주막에 격문 붙이기 등 훨씬 다양한 방도를 동원해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칙제정운동,학칙개정투쟁

반성폭력 학칙 연구사업

*대학내 여성문화운동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 운동

*군산화재참사 투쟁

군산 화재참사를 소재로 모의법정을 진행한 대학도 있으며,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성매매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투쟁

호주제폐지 전국순회 캠페인에 함께

1만인 호주제폐지 서포터스 참여

*일본군 위안부 투쟁

-500차 수요집회전국 집중

500차 수요집회를 전국 집중으로 진행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선전의식화를 진행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을 만들어왔습니다.
-특별법 제정투쟁

*기지촌투쟁

-기지촌활동가기

남여대협에서는 지역단위로 기지촌활동을 준비하고 2개의 기활참가단을 꾸려 기지촌활동을 성과적으로 진행
-윤금이씨 10주기 추모제

@양대선거투쟁
-대선과 지방선거
-여성의정치세력화 문제
-민노당, 사회당 등과 같이 진보적인 여성정책 토론회

3. 조직사상투쟁

@권능성 강화

금요유인물을 상반기 동안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제출했었고, 5월까지는 조성되는 정세적 계기마다 성명서를 내는 등 의식화사업의 기동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새내기신문 및 교양자료 등도 제출하면서 내용성을 높이려고 했던 시도와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여성정세 인식력 높이기
*사안별 투쟁과제 전문성 높이기
*체계적인 여성학 학습 강화

@자여론 보강
*토론과제 제출하여 자여론 토론진행
*여름 수련회 진행

@새내기 학습

@대학여학생운동 강화

현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여대협의 조직적 현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생단위(광주대, 경산대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성과를 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학생운동이 조금씩 정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여대협의 성과(여농학 연추회의, 남녀대협 차원에서 기활 진행, 지역 여성통일 잔치 등의 사업), 부경여대협의 재건(아직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대경지역 여학생회가 함께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가는 부분(지역출범식 준비, 지역 공동 투쟁 계획), 서울지역 여학생회들의 공동 사업과 투쟁의 성과들로부터 지역여학생운동의 흐름이 조금씩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학내 여성조직과의 공동투쟁 활성화는 요구되어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 조직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집중할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이후 대학내 사업에서 함께 할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기층 건설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자.
전국대학 차기 총여학생회장 모임 - 11월 30일~12월 1일 (가)

@지역여학생운동강화

부경여대협의 경우에는 3년만에 지역 임시체계가 재건되고 그에 따라 지역차원의 모임과 사업등을 고민하고 펼쳐가고 있습니다.

@대학내 여성조직과 공동투쟁 활성화

@일꾼혁신운동

@여학생운동 이해 높히기

4월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통해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 문제제기를 하고 교양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체 일꾼들에 대한 반성폭력 의식화 사업이 더욱 많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체 일꾼들 속에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갈 수 있는 토대가 일정정도 마련되었습니다.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의 장기적·구체적 계획 수립
하반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10월안에 장기적 계획을 제출

전여대협 출범식에 많은 대학에서 전체대오를 조직하였으며, 8.15 여성통일 한마당에는 영남대에서 짧은시간이나마 전체대오가 결합하면서 여성의 통일운동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동아대에서는 대학 전체 여간부들을 대상으로 여간부 학교를 진행하고 총학생회 집단조례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교양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간부학교에서는 아주 많은 수의 여간부들이 조직화 되지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여간부들과 함께 여학생운동과 변혁운동에 대한 강연과 토론 등을 진행하면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총학생회 집단조례 때 여성문제에 대한 교양을 제안하여 전체대오 내에서 여성문제 여학생회의 내용을 풀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평가